

학교생활

졸업식 수상 기준이 궁금해요.

중3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주 월요일 학교에서 학생들만 참석해 졸업식이 열렸는데요, 아이가 구의원상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듣자니 어떤 친구는 장관상을, 다른 친구는 교육감상과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요. 한데 상장 수여를 놓고 아이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요. 졸업식 상장 수여 기준은 모든 학교에 동일 적용되나요? 아니면 학교마다 다른 건가요?

김윤서 (42·서울 노원구 상계동)

A 일반적으로 교내상은 학년초 수상 계획 기준, 대외상은 학교별 졸업 예정자 표창 순위에 근거해 시상합니다.

졸업식에서 수여하는 상장의 종류와 수는 학교마다 각기 다릅니다. 경기 무원중 손현정 교사는 “졸업식에 수여하는 상장은 학교별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의 ‘수상 경력에 관한 사항’에 근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중 교내상은 학년초 교내 수상 계획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수여하며, 대외상의 경우 학교별 기준에 따라 ‘졸업예정자 표창 순위’를 정하고 순서대로 시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전합니다.

수상 기준은 학교별로 다르나 대부분 성적, 출석, 수상, 봉사, 전반적인 생활 태도 등을 반영해 추천 순위를 정해 수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업 성적이 가장 우수하더라도 비교과 영역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 교사는 “학교마다 교육감, 교육장상 등 교육 단체가 수여하는 상 외에 대외상을 수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여 기준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

MORE TIP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구체적인 상장 기준을 알고 싶다면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서 해당 학교를 검색해 ‘학교 규칙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의 ‘포상 기준’ 항목을 살펴보면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졸업식 외 학기중 수여되는 교내 활동 관련상의 경우도 교감과 교무지원부장, 교육 연구지원부장, 생활자치부장, 상담복지부장, 학년부장, 포상 담당 교사 등이 주축이 된 ‘포상위원회’에서 교칙에 의거해 발급합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ri@naeil.com



입시

A 가톨릭대 송실대 세종대 등 일부 대학은 수학 가산점을 반영합니다.

2022 대입 수학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해 표준화된 점수를 산출합니다. 특정 선택 과목을 응시한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으면 표준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점수 보정을 하는 셈입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연구원은 “일부 대학에서는 정시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에게 5% 또는 10%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대부분 중위권 대학으로, 자연 계열 학업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연 계열에서 〈미적분〉과 〈기하〉에 5%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은 가천대, 대진대, 덕성여대, 삼육대, 세종대 창의소프트학부, 송실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소프트웨어공학과 등 자연 계열 2, 인천가톨릭대 간호대학,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과·항공운항학과·자유전공학부, 한세대 등입니다. 10%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은 가톨릭대, 광운대 정보융합학부·건축학과, 단국대 건축공학과, 동덕여대, 성공회대 IT융합지율학부, 성신여대 간호학과,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항공시스템공학과, 안양대, 인천대, 차의과학대 등입니다. 참고로 서울여대는 디지털미디어학과·정보보호학과·소프트웨어융합학과·수학과 지원 시 〈기하〉 선택자에게만 10%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2022 대입에서도 수학에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나요?

2021 대입에서는 수학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해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 수학 가형을 응시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여럿 있었습니다. 2022 대입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체계로 바뀌고, 특히 수학은 선택 과목별이 아닌 수학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등급을 산출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 대학은 여전히 가산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이세영(49·서울 서초구 방배동)

MORE TIP

허 연구원은 “〈미적분〉과 〈기하〉에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지원한다면 반드시 반영 방식과 유효리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광운대는 표준점수의 10%를 반영하는 한편, 서울여대는 백분위의 10%를 반영하는데, 올해 수학 가형 3등급 컷인 표준점수 117점, 백분위 78로 계산하면 광운대는 11.7점, 서울여대는 7.8점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